

가람 이병기 선생 재조명 기획전시

익산시 가람문화관, 31일까지 '가람한시전' 개최

익산시 가람문화관이 가람 이병기 선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재조명하는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가람문화관은 오는 31일까지 가람 이병기 선생이 지은 한시를 주제로 하는 2021 기획전시 '가람한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가람 이병기 선생의 일기 속에 등장하는 한시 9점(7언절구 6점, 5언절구 3점)을 통해 지난 1909년부터 1926년 사이 '한시'라는 이전의 시 양식으로 표현된 가람 선생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전시작품은 김계천, 김성덕, 박태평, 소성길, 송현숙, 이병식, 정명성, 조수현, 조완빈 등 익산에서 활동하는 서예 화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져 더욱 눈길을 끈다.

가람 선생은 평소 독서와 서필기를 중시하며 시조 창작의 원동력으로 삼았는데, 1926년 9월 2일 자 일기 속에는 <독서(讀書)는 5언절구 한시 작품이 들어있다.

"아심중회적 / 등화독자명 / 전서간부진 / 계이양삼성 [깊은 밤 못 소리 고요하고 / 등불만이 절로 밝아라 / 펼친 책 다 읽지 못하고 / 닭은 이미 두세 번 울었네]"

이처럼 작품을 통해 당시 가람 선생의 독서 생활을 짐작하는 등 가람 이병기 선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발견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근대사적·문화사적 역할을 조명하는 작품을 감상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당 송현숙 작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람문화관(063-832-18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득훈 기자



전주문화재단은 지난 10일 '2021 이팝프렌즈 시상식'과 함께 시민에게 송년 음악선물을 전하는 '위로와 힐링이 있는 팔복다복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팝프렌즈' 문화예술 후원행사 성료

전주문화재단, 시상식·위로와 힐링이 있는 팔복다복 음악회 가져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지난 10일 '2021 이팝프렌즈 시상식'과 함께 시민에게 송년 음악선물을 전하는 '위로와 힐링이 있는 팔복다복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2021 이팝프렌즈 시상식'은 올 5월 전주문화재단 후원회로 발족한 '이팝프렌즈'가 어려운 예술현장에서 창작을 이어나가는 예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지난달 24일까지 전주시민과 예술단체로부터 수상자를 추천 받아 선정했다.

이번 예술인상에는 윤철규(중진-시각), 김재원(중진-공연), 윤미류(유망-시각)씨가, 기획자상에는 박근영(유지컬수컴퍼니)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에게는 상금 각 300만원을 수여했다.

또한 기업회원인 (유)플러스건설과 현대옥션벤처이츠와, 그리고 개인회원인 영광옥씨가 감사패를 받았다.

이러한 음악회에서는 시민과 함께 긴 어려움의 시간을 견디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원하는 무대가 이어졌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한 주민은 "팔복예술공장에서 음악회를 감상할 좋은 품에도 불렀다"며, "팔복동 주민들이 문화로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아질 것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재단은 올해 5월 문화예술 후원회 '이팝프렌즈'를 발족하고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펼쳐왔다. 발족 이후 지금까지 8개 기업으로부터 4,500백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받고, 한국국제협력회의 매칭펀드 지원으로부터 2,500백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 여기에 더해 CMS 회원들의 후원금 500만 원이 더해져 총 7,500만 원의 예술후원금이 마련됐다.

한편 이번 행사와 이팝프렌즈 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www.jjc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담당자(063-211-927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군산서 중국 쓰촨성 대표작가 서화작품 전시 열려

군산예술의전당서 14인 60점 전시

군산시는 쓰촨성 대표작가 14인의 '서화에 담은 쓰촨' 전시를 성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화에 담은 쓰촨' 전시는 중국 쓰촨성 시화원 대표작가 14인의 서화작품 60점으로 구성돼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군산예술의전당 2·3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6년 군산시와 주한중국 문화원 간의 전시·공연 업무협약에 의해 실시됐다. 두 기관이 함께 매년 1회 이상의 공연·전시 등을 추진해오던 중에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으로 잠시 멈춰선 문화연대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중국 쓰촨성은 예로부터 중국의 유명한 문인인 소식, 이백, 두보 등을 통해 '천부지국(天府之國)'이라 찬미되던 곳으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삼국지'의 두 주인공인 '유비'와 '제갈공명'이 천하를 논하던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상장이 되어버린 '텐더의 고장'으로 불리며, 주지이거우, 아메이산, 러산대불 등의 세계적인 명승지로 전 세계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후베이성 경극단 군산공연을 시작으로 군산시와 주한중국문화원이 추진해 온 문화소통의 장이 글로벌 팬데믹이란 역경에도 불구하고 재연결 되었다"면서 "위드코로나시대를 맞이하여 철저한 방역

지침 속에서 진행된 이번 전시가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군산시가 소아올린 양국 문화소통의 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지침 속에도 충분히 자유할 수 있는 치유의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은 1994년 엔타이를 시작으로 중국 내 13개 자매우호도시와 문화, 체육, 관광, 경제·통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밀접한 교류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주한중국문화원을 통해 비체결지역과의 인문·문화 교류를 통해 14억 중국에 군산시를 알리고, 중국 지자체·기관 등과 연계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교류지원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군산=한경룡 기자

전주역사박물관, 기증 유물 특별 전시전 개최

전주역사박물관은 내년 3월까지 '기증:공유, 뜻을 나누다'를 주제로 기증·기탁유물 특별전을 연다.

이번 특별전은 △제1부 '전주, 대대로 살아오다' △제2부 '기록으로 기억하다' △제3부 '옛 정신을 담다' △제4부 '뜻을 나누다'로 구성·운영된다. 인동 장씨 일가의 자료에서부터 황녀 이문용의 친필 병풍,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참선장 22호 고 박혜순 선생의 궁중복식 재현작, 2021년 기증자 유물 등 지난 20년간 기증된 100여 점이 선을 보인다.

제1부 '전주, 대대로 살아오다'에서는 남도산성 별장을 역임했던 정영종의 방계 후손인 장인생 선생이 기증한 인동 장씨의 족보와 교지, 고문헌, 생활유물이 전시된다. 이는 인동 장씨 일가의 내력뿐만 아니라 전주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제2부 '기록으로 기억하다'의 경우 전주신흥교회 김대선 목사가 기증한 고종의 막내딸 황녀 이문용의 친필 8곡 병풍과 전북대학교 소소열 명예교수와 백상재 선생이 기증한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이 담긴 기록물들이 소개된다.

제3부 '옛 정신을 담다'에서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22호 참선장 고 박혜순 선생이 기증한 조선시대 궁중복식과 사대부의 복식 재현품 157점을 만나볼 수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명의 복식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방식으로 적의제도(翟衣制度)가 변화되면서 정립된 조선 복식을 확인할 수 있다.

제4부 '뜻을 나누다'의 경우에는 2021년 신진탁, 오형근, 이명순, 조봉진 선생이 전주역사박물관에 기증한 총 45점의 유물과 자료가 전시된다. /김윤상 기자



안숙선 명창 여정서 소리꾼 판소리 강좌 개강·발표회 가져

남원시는 판소리의 전통을 잇고 소리와 이야기로 판소리의 역사를 배우는 과정으로 올해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명예 소리꾼' 판소리 강좌를 개강하고, 여정 개관이후 첫 번째 명예 소리꾼 판소리 발표회를 지난 8일 오후 5시 명창의 여정에서 가졌다.

여정의 판소리 강좌는 지역의 기관 및 공무원 등이 직접 판소리를 배움으로서 판소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판소리의 고장 남원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강좌는 4월에 첫 강좌를

시작해 12월까지 판소리에 대한 기초지식과 판소리 주요 대목, 단가, 남도민요 등을 주 1회 야간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명예 소리꾼은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정의 국악체험관은 판소리의 정체성을 한껏 드러내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판소리 체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숙선 명창은 이 공간에서 향후 관객들과 직접 대면하는 공연과 대담에 참여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